

해안선 4.8km 곳곳이 촬영 명소 ‘사진찍기 좋은 섬’

해남서 유일하게 육지와 연결된 섬
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33섬’ 뽑혀
암초 ‘앞여끝’ 사진 작가들이 사랑
주민들 어선어업·전복·김양식
바다식물 잘피 군락·해삼 산란장
4월 승어떼 쫓는 상괭이 광경 장관

몇 시간을 달려서든 꼭 가고 싶은 섬. 해남 임하 마을에 어울리는 수식어다. 해남군 문내면 임하도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선정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이름을 올렸다. ‘제2의 섬의 날’(8월8일)을 기념한 이번 행사에서 임하도는 전국 3800개가 넘는 섬 가운데 ‘사진 찍기 좋은 섬’ 대열에 들 정도다.

4.8km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발이 멈추는 곳마다 촬영 명소다.

사철 내내 푸른 소나무들이 지키고 있는 암초 ‘앞여끝’은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일몰사진 맛집’이다. 암초는 썰물이면 임하도와 연결됐다가 밀물이면 섬이 된다.

술 끝에 달을락말락하는 석양을 카메라 앵글에 담으며 낙조의 아쉬움을 달래는 사진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임하도는 해남에서 유일하게 육지와 이어진 섬이다. 지난 1988년 문내면 예락리를 오가는 180m 길이 임하교(林下橋)가 설치돼 군내버스로도 오갈 수 있다. ‘안섬’과 ‘바깥섬’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작은 다리로 이어져있다. 섬 남쪽으로는 진도 신기마을, 서쪽으로는 신안 마진도를 마주보고 있다.

임하도는 하늘에서 보면 섬이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마도(二馬島)’라 불리기도 했다. 근대 들어 마을이 융성한 산림을 이루자 임하도(林下島)라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다.

주민 88명 중 30명이 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선어업 30%와 전복 양식 30%, 김 양식 20% 등으로 나뉘고 조개·낙지 등 맨손어업 비중도 20% 가량 된다. 소일거리 삼아 밭에 고추, 마늘, 무를 키우기도 한다.

면적 0.55㎢ 작은 섬 임하마을에는 선착장이 두 개나 있다. 작은 섬을 지나 해안도로 따라 북쪽으로 가면 첫 번째 선착장이 있고, 서쪽 끝자락에도 하나 있다.

늦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면 이곳 승어를 맛보기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 오는 행락객들이 잇따른다.

임하도는 해남 우수영의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온 승어가 남해로 이동하는 길목이다. 기상여건이 좋을 때는 하루 2t 가량의 활어를 위판하기도 한다.

보리가 익어갈 무렵인 5월에서 6월 가장 맛있다



수산자원만큼 산림이 풍부한 해남 임하도(林下島)는 하늘에서 보면 섬이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마도(二馬島)’라 불리기도 했다.

는 ‘보리승어’의 인기가 절정이다. 어민들이 배에서 직접 잡은 승어를 손질해주기도 한다. 만원 한 장이면 네다섯 명 거뜬히 승어 2마리를 맛볼 수 있다.

임하마을 앞바다는 바다 식물 잘피 군락과 해삼 산란식식장이 있는 청정해역이다.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빠른 조류가 흐르는 울돌목이 직선 5km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잘피 군락지는 바닷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어린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준다. 덕분에 임하 앞바다에서 나는 전복은 건강하고 살이 두툼하며 오독오독하고 식감이 좋기하다. 다양한 어족자원들이 잘피 군락에서 나온 풍부한 플랑크톤을 먹고 살찌운다.

김과 전복을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도 제법 보인다. 임하어촌계에는 전복 양식장 36ha·김 양식장 10ha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구당 역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마을 토박이 조인석(65)씨는 임하도 전복과 김은 때로부터 다르다고 입이 마르게 자랑한다.

“남해안의 거센 조류를 맞고 자라는 임하도 전복과 김은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의 보고(寶庫)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판매해왔지만 마을공동기업을 만들어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년 넘는 역

사를 지닌 임하도를 내건 특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도 있습니다.”

암석해안으로 둘러싸인 임하도는 곳곳이 갯바위 낚시 명당이다. 감성돔, 농어, 승어, 장어 등 다양한 어종이 가득해 낚시대가 실 틈이 없다.

때로는 가족 단위로 온 캠핑족들이 갯배에서 낙지와 꼬막, 바지락을 캐가기도 한다.

임하도 최서단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기암괴석으로 수놓은 암석해안이 500m 길이로 한눈에 펼쳐진다.

만세토록 파도에 깎이고 다듬어진 암석해안의 굴곡은 마치 임하마을이 걸어온 나이테 같다. 해안 지척에는 임하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무인도 ‘동섬’이 있다.

임하도에는 이렇다 할 산(山) 없이 해발 고도 30m 안팎의 구릉지만 몇몇 분포한다. 마을 전체에 완만한 경사의 산지와 평지가 어우러져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기 좋다.

해안을 잇는 데크길을 따라 10분 안팎 언덕배기로 오르면 새하얀 무인등대가 고즈넉한 바다 풍경을 자아낸다. 1980년 세워진 이 등대는 인근 서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파수꾼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등대 옆에는 문내임하 상괭이 관찰대가 마련돼 있다. 멸종위기종인 고래 상괭이는 입 꼬리가 올라

가 있어 웃는 인상을 준다.

울돌목 승어가 돌아오는 4월부터는 상괭이가 무리를 지어 승어떼를 쫓아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진다.

임하마을을 찾은 이날 해무 탓에 상괭이를 발견하기는 힘들었지만, 조금만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상괭이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박상준(60) 임하마을 이장은 “산림이 우거진 임하(林下)마을은 봄에는 야산에 철쭉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푹한 바다 내용과 한적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며 “임하교를 건너 사진 명소 ‘앞여끝’에서 해변, 데크길로 이어지는 등대까지의 둘레길을 추천한다. 물때를 맞춰오면 싱싱한 수산물들 갖 잡아 맛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광주일보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광주일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어촌수산물직거래장터
바이씨



해안에서 시작하는 데크길을 따라 10분 정도 오르면 새하얀 무인등대가 반겨준다.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개통되면 인기 짱 상괭이가 뛰노는 섬관광 이만한곳 없죠”

김선민 임하어촌계장

명랑해협의 서북쪽에 있는 임하도 앞 넓은 바다는 명랑대첩 격전지로 알려져 있다.

해남 임하마을 주민들은 나라를 지키려는 선조들의 정신을 잇기 위해 매년 ‘우수영 강강술래’에 참여하고 있다.

우수영 강강술래가 간판 행사인 명랑대첩축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리지 않고 있다.

임하 주민들의 끈끈한 연대는 현대에서도 빛을 발한다. 주민들은 마을 정화활동에 팔 걷고 나서고, 힘을 합해 ‘꼭꼭 승어랑 상괭이 보일랑’이라는 이름의 관광축제를 열기도 했다.

김선민(47·사진) 임하어촌계장은 이웃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라는 마음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임하마을에서 나고 자란 김 계장은 10년 전 귀어해 2ha 규모 전복 양식장을 꾸렸다. 서울에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동지를 옮긴 세 자녀들은 각각 고교생, 초등생으로 성장했다.

“제가 고향에서 학교 다닐 적만 해도 육지를 오갈 수 있는 다리가 없었어요. 연륙교가 생기면서 임하마을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땅 끝 해남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섬 관광으로는 이만한 곳이 없죠. 이날 말 해남과 진도를 잇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960m)가 개통되면 임하도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자녀와 함께 2가구가 귀어하면서 10대가 3명, 20대가 6명으로 늘었다. 30~40대도 11명, 50대는 15명에 달한다.

귀어 가구들이 비어있는 집을 새로 고쳐 들어오면서, 빈집은 단 한 곳만 남았다. 마을 교회에는 남녀노소 쉬어갈 수 있는 도서관도 마련됐

다.

지난달 임하어촌계와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협약을 맺고 마을의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수산물을 전국 각지에 알리기로 했다.

임하마을의 매력을 담은 홍보물과 영상은 금호익스프레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에서 만날 수 있다.

임하어촌계는 주민 삶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올해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에 재도전했다.

사업의 전반적인 주제는 ‘상괭이와 예술인이 사랑하는 바다갤러리, 임하도항’이다. 현재 임하마을을 집집마다 꾸며진 벽화와 어우러진 ‘100인 예술로’와 ‘임하바다 갤러리’를 조성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임하마을 한복판에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작가를 위한 창작 공간 ‘이마도 작업실’이 마련돼 있다.

김 계장은 “행운의 상징인 상괭이가 뛰노는 아름다운 바다를 더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상괭이 생태관찰대’를 정비하려는 노력도 할 예정”이라며 “태풍으로부터 배가 안전하게 정박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광주일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상괭이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임하도 언덕배기에는 상괭이 관찰대가 마련돼 있다.



사철 내내 푸른 소나무들이 지키고 있는 암초 ‘앞여끝’은 썰물이면 임하도와 연결됐다가 밀물이면 섬이 된다.